



우리의  
家章

# 青松沈氏宗報

發行人：沈斗燮  
編輯人：沈載烈  
서울市 中區 五壯洞 14-10  
電話：(02)2267-7857  
(02)2263-7897  
FAX：(02)2269-7755

非賣品 1996. 1. 3 등록번호 서울 라 - 549호

홈페이지 | www.csshim.or.kr

## 謹賀 2011(辛卯) 新年



대중회 회장  
沈斗燮

### 新年辭

서기 2011년 1월 1일 신묘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청송심문 가족 여러분! 금년에도 내내 강령하시고 가내제절의 균안하심과 뜻하시는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연초부터 한파의 내습으로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고 구제역은 도처에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축산인의 아픔을 위로 하고 대동단결하여 물가안정과 역질 종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하루 속히 이 난국을 극복하여야겠습니다.

지난 경인년은 경술국치(庚戌國恥)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국권상실로 질곡의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해방후에는 혼탁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6.25 참화로 인한 폐허속에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오늘의 경제대국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에 힘입어 World-cup 원정 첫 16강에도 진출하였습니다. 특히 G20 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인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서해 바다에서는 우리 국군이 적의 기습공격을 받아 함정과 인명이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서는 군장비의 현대화로 전투력을 증강하고 안보문제에 관하여는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대중회는 시조 문림랑공(文林郎公 諱 洪孚)의 덕업(德業)을 추모찬양(追慕闡揚)하고 산소수호 및 종중재산의 관리와 존조수족(尊祖收族)의 정신을 함양진흥케 함을 목적으로 1971년 5월 30일 창립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수익기반이 전혀 없어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임원들과 전국 일가분들의 헌성금을 모아 전국 5처산소의 정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1994년 3월 안성과 청주의 위토보상금으로 대중회관을 구입하고 그 임대수익으로 자립기반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2002년 9월에는 대동세보를 발간 배포함과 동시에 젊은 세대들이 문중의 역사를 배우면서 일가들간에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으며, 누구든지 인터넷 족보를 검색해 보고 추가로 등재할 내용이 있으면 항시 수단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4월 6일 시조산소 춘향일에는 대중회 발전에 헌신하신 전임 대중회장님 두 분의 공적비와 송덕비를 시조산소 묘하에 건립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은 대중회가 창립된 이후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동안 대중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사업들을 총정리하여 「青松沈氏大宗會 40年 略史」를 발간 배포할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삼한갑족(三韓甲族)의 자긍심을 가지고 후손들로 하여금 청송심문의 전통을 자손만대에 영원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합시다.

일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辛卯 元朝  
大宗會長 沈斗燮



대중회 명예회장  
沈宜洛

### 국운융성(國運隆盛)에 동참 합시다

希望의 辛卯년이 밝았습니다. 먼저 우리 대중회의 무궁한 발전과 우리 전국 중인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은 多事多難하고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김정일 도당에 의한 天安艦 爆沈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安保가 위기에 처했음에도 우리는 전년대비 6.1%의 성장을 하였으며 수출 세계 7위 무역 규모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G20 의장국으로서 서울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주변국가에서 세계중심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금년에도 5%의 성장목표로 경제발전에 주력할 것이라고 하며 기업들도 과감한 투자와 공격적인 경영을 선언하였습니다. 우리는 국운융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때에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일류선진국가 건설에 참여합시다.

그러나 일류 국가건설의 대전제는 확고한 安保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화가 되고 인권이 존중되며 경제가 융성한 나라일지라도 튼튼한 안보가 없으면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옛날 아테네는 민주정치를 꽃피운 세계 중심지였으며 경제도 문화도 大國이었으나 인간을 전쟁 기계로 양성한 兵營國家인 스파르타에게 패망하였으며 또한 월남공화국의 패망을 들 수 있습니다. 월남은 공산월맹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도 융성하였으나 월맹과의 전쟁에서 韓美 연합군의 참전과 막대한 군사원조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보관의 해이(懈弛)로 전선에 배치된 월남군은 새로 지급된 신식무기를 월맹군에게 팔아먹고 전투 없이 후퇴한 거듭하였으며, 후방에서는 월맹에서 밀파된 특수공작원의 선동으로 사이공(현 호치민) 시민들은 매일같이 반전시위를 거듭하고 승려(僧侶)들은 반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는 등으로 사회질서는 마비되어 국가기능을 완전 상실함에 따라 수십만의 연합군은 필사적인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월남 공화국은 드디어 1975년 4월 30일 멸망하고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전 국토를 요새화(要塞化)하고 2천300만 인민을 전사로 무장시킨 김정일 도당은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는 월남 사태가 우리에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은 北의 핵 위협보다 우리 내부의 분열입니다. 지난 좌경 정권 10년 동안에 이완(弛緩)된 안보관을 하루빨리 가다듬어 우리 국토는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안보의지를 고취(鼓吹) 확립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대처 격퇴 보복할 수 있는 국방체제를 갖추어야 함이 시급하다는 것을 우리 정부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으로 우리 대중회에서는 작년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을 완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중회 創立 40年史를 간행하는 등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斗燮 會長님과 집행부 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5處 山所 宗有司 여러분과 대중회 사업에 참여 협조해 주신 중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全國 宗人 여러분 새해에 福 많이 받으세요.

辛卯年(2011) 正月初  
名譽會長 沈宜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慶南) 鎮奎 | (慶北) 容奭 | (全南) 相國 | (全北) 相錄 | (忠南) 鍾默 | (忠北) 相善 | 揆完 | 載昊 | 永澤 | 求亨 | 康燮 | 相龍 | 相甲 | 應汶 | 駿慶 | 愚慶 | 炯茂 | 在安 | 逸玄 | 燈湖 | 相均 | 英昌 | 載洪 | 載泰 | 載求 | 理有 | 事司 | 有司  | 執行部 | 副會長  | 名譽會長 | 顧指導 | 顧問 |
| 東燮      | 吉燮      | 柱燮      | 在圭      | 載德      | 相正      | 相斗 | 相善 | 錫華 | 光龍 | 良燮 | 相億 | 相鴻 | 隆祐 | 應求 | 愚八 | 相茂 | 在直 | 玄根 | 湖澤 | 昌德 | 昌勇 | 載金 | 載泰 | 載求 | 事司 | 有司 | 執行部 | 副會長 | 名譽會長 | 顧指導  | 顧問  |    |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燮  |

多事多難했던 庚寅年 한해가 지나가고 希望찬 辛卯年 새 해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일가 여러분 새해 福 많이 받으시고 모든 일들을 成就하시기 바라며 家庭이 平安하고 幸福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 謹賀新年

### 青松沈氏大宗會



仁壽府尹公宗會 會長 沈晶求

### 辛卯年 새아침을 맞으며!

尊敬하는 一家 여러분!

그 어느해 보다도 다사다난했던 庚寅년 한해가 지나고 辛卯年 希望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혜와 풍요의 상징인 토끼의 해에 一家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시고 항상 幸運이 充滿하기를 바라며 所望하였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하시기를 眞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설과 태풍 콤파스를 비롯하여 배추값 폭등, 연평도 폭격사건, 구제역 등 우리 모두가 참기 힘든 일도 많았지만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과 광주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최고를 향해 뛰었고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 되었으며, 서울 G20정상회의를 成功的으로 개최하는 기쁘고 보람있는 일 들도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今年에는 튼튼한 安保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며 사는 希望의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지혜를 모아 努力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一家 여러분! 우리 門中에서도 지난해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一家여러분의 끊임없는 關心과 聲援으로 三處산소 수호 관리도 차질없이 수행하여 왔습니다.

五世祖이신 仁壽府尹公묘소는 진입로 입구에 묘소안내 標石이 없어 一家 여러분들이 參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標石을 秀麗하게 설치하여 편의를 도모하였고, 六世祖이신 양혜공묘역과 七世祖이신 망세정공 묘역은 잡초제거와 주변 나뭇가지치기 石物교정 등 景觀 관리에도 心血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소 안타까운 것은 齋室이 없어 시제 봉향시 비가 올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연차 계획을 세워 代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一家 여러분!

辛卯年 토끼의 해에는 보다 많은 一家분들이 參席하여 서로 和合團結하고 宗事發展에 관한 좋은 高見을 주시어 宗會가 隆盛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辛卯年 새해에는 一家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幸福과 希望이 가득하시며 萬事亨通하시기를 忠心으로 祈願합니다. 감사합니다.

辛卯年 새해 아침

仁壽府尹公派宗會 會長 沈晶求



安孝公宗會 會長 沈行鎭

### 新年辭

辛卯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一家 여러분께 먼저 세배 드립니다.

그 동안 댁내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일가 여러분! 지난 한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같은 안보위기가 있었고 또한, 진정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번지는 구제역은 축산농가의 실음과 온 국민의 아픔으로 다가오는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대홍수, 대폭설과 지진 등이 곳곳에서 발생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용돌이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은 인내와 지혜로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는 저력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 안효공종회에서 일가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종재의 운영관리면에 있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종재의 보존과 가치증식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사업무에 있어서도 투명하고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적인 집행만을 원칙으로 하여 일가여러분으로부터 신뢰와 촉망받는 종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쪼록 금년 辛卯년에는 일가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신묘년 원단

安孝公과종회 會長 沈行鎭 배상

### 기른 정, 지극정성 시묘(侍墓) 살이로 갚은 심희(沈澮)

고아 예강리 시묘암(侍墓岩, 거류암)에 깃든 이야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모는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나에게 세상을 보여준 분이시다. 온전한 인간으로 세상을 살아가 수 있도록 길러준 존재가 바로 부모이기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孝'는 인간 도리의 으뜸으로 쳤다.

간혹 낳아준 부모와 길러준 부모가 달라 혼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낳은 정과 기른 정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을 몇몇의 사례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입양된 아이를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라며 정성껏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간극은 점점 해소돼 가고 있다.

구미시 고아읍 예강리 시묘암에는 양부모가 세상을 떠나자 6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며 기른 정에 대한 보답을 한 심희(沈澮)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시묘암의 주인공인 심희는 조선 세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그의 아버지 심온(沈溫)은 세종의 장인이며, 누님은 왕비였다.

조선3대 임금인 태종은 왕권강화를 위해 좌의정 박은과 짜고 아들 세종의 장인인 안효공께서 태종을 비방했다하여 불경죄로 자진(自盡)케 하니 이것이 무술옥사이다. 심희의 누님 이었던 소헌(昭憲)왕후의 어머니 순흥안씨께서는 천안(賤案)에 올라 관노가 되었고, 이때 소헌왕후의 밀명을 받은 유모가 심희를 등에 업고 무작정 도망쳐 현재의 고아읍 대망리에 당도했다.

당시 고아읍 망장리에 있는 신천 강거민(康居敏)의 삼밭에 이르러 쓰러진 유모와 심희는 음력 10월 17일 강거민에 의해 발견



견돼 그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강거민은 심희를 양자로 삼아서 잘 길렀다. 심희의 나이가 34세가 되던 文宗1년에 아버지 안효공께서 신원복권(申冤復權)되고, 이후 澮와 決 두 兄弟는 함께 주부 직에 출사하였으며 이후 澮는 영의정까지 올랐다.

그러다 1474년 養어머니 전(全)씨가 돌아가시자 "나를 낳아 주신 분들도 부모요 나를 길러 준 부모도 부모"라며 정승직을 사임하고 고아읍 예강리에 내려와 양부모 묘소가 있는 바로 옆 크고 넓은 바위인 시묘암에서 시묘(侍墓)살이를 했다.

그 후 심씨 후손들이 제사를 받들다가 심흥원(沈興源)이 아들이 없자 사위인 고산 황기로(黃耆老)가 제사를 지냈으며 고산 황기로 역시 후손이 없자 사위인 玉山이우(李瑀)에게 물려주니 12대를 양외외손(養外外孫)이 계속 제사를 지내게 됐다. 지금은 청송심씨대종회 주관으로 沈氏, 신천康氏, 덕수李氏 後孫들이 (음력 9월 21일) 제사를 지낸다.

거류암(居留岩)이라고도 불리는 시묘암에는 영의정까지 지낸 심희가 어린 시절 자기를 구해주고 길러준 양부모 강거민(康居敏) 부부의 기른 정을 시묘살이로 갚았던 효심이 묵묵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새겨져 있는 듯하다.

< 구미회보 >

理事 總務 昌輔 奉求 奎燮 德求 鍾德 駿求 求亨 長植 春植 應輔

副會長 贊求 鍾植 根植

青松沈氏 仁壽府尹公宗會

謹賀新年

理事 (서운) 宜約 忠澤 相文 相慶 斗燮 洪燮 佑燮 明燮 載洪 載燮 贊秀 錫廷 容圭 種福 (인천) 在弼 應善 光燮 左輔 (성남) 龍澤 載烈 (수원) 成鎮 厚燮 孝燮 榮燮 彥燮 忠燮 賢燮 旺燮 駿燮 彥珪 成鎮 南鎮 相燮 相元 應鎮 舜鎮 相讚 彥契 相昇 相福 (김포) 元輔 良燮 載勳 相燮 允輔 (포주) 光燮 仁燮 榮燮 (안성) 權裕 虎燮 相旭 政燮 (용인) 魯鎮 在天 彥吉 載國 永周 彥昌 景燮 相穆 載浩 (안양) 毅根 應來 載文 (화성) 國鎮 相鳳 教鎮 (여주) 光燮 (안산) 相厚 (평택) 文鎮 (청주) 興燮 中來 文錫 (남양주) 相浩 (의산) 昌燮 周燮 相國 仁求 (고양) 憲燮 昌燮 (아산) 彥昇 仲根 (대전) 宜哲 載榮 奉燮 連輔 星輔 (춘천) 仁燮 (원주) 正輔 相烈 (진주) 在圭

副會長 庚周 相德 敏玉

監事 文洙 一輔

運營委員 在安 光澤 萬鎮 相泳 相直 應瑋 相國 明玉 玄根 茂燮 載春

總務理事 載玉

財務理事 相弘

管理理事 相培

墓下管理事 相億 彥村 應植

青松沈氏 安孝公宗會

謹賀新年

# 13世祖 贈大司憲 行 應教公 (휘: 東龜) 墓碣銘 - ②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 8

드디어 집의(執義)가 자리를 피하며 말하였다.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고 공론이 더욱 진행하지 않으며 당론이 오히려 더 심해지니 그 단서를 마련하는데 바쁘고 현혹하고 간사하여 마침내 조롱거리를 남겨서 옥당(玉堂)을 비웃도록 하니 결국 옳은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침내 파직된다고 하니 이 때 김세렴(金世濂) 이경의(李景義) 이명웅(李明雄) 정언항(丁彦瓊)이 모두 시배(時輩)<sup>⑬</sup>들이 지지하는 바이나 역시 공의 말씀이 옳습니다.』

시배들이 이미 동류로서 진을 치고 조정을 한번 떠들썩하게 하고는 김청음과 정동계에게 죄를 청하고 공 같은 이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도 4년 동안이나 밀려다니면서 절대로 원망하는 빛이 없었으며 강교(江郊)에 밀려나서 세월을 보내면서 산수를 노래하며 유유자적하니 선비들의 공론이 모두들 귀하게 여기었다.

辛巳(1641)년에 처음으로 풀려서 다시 三司에 되돌아오게 되고 지제교로 선별되어 장차 호당(湖堂)으로 선임될 준비를 갖췄다. 사관의 추천으로도 당시의 재상에게 미움을 샀으니 김자점(金自點)이 재상으로 들게 되자 공이 옥당으로서 논박을 받고 마침 직위가 바뀌고 임명받지 못하다가 천거에 의해 검삼(檢詳)과 사인(舍人)이 되었고 일찍이 大行에 종사하고 사신이 되어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甲申(1644)년 3월에 심기원(沈器遠)이 배반하여 옥사가 일어났는데 그 당의 권두창(權斗昌)이 거스르는 말을 했고 이시영(李時英)이 실제 그 모의에 간여했으나 표면에 나오지 않고 밖에서 사주하니 대신(臺臣)들이 병사(兵使)를 교체하도록 의논했다. 당시 그 의논을 먼저 한 자는 바로 그 사람인데 그가 화를 두려워하여 발설을 했으니 서로 없는 걸로 하자고 애걸함에 공이 정

색하여 말하였다.

『전하게 드리는 말씀은 반드시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이니 내가 만일 먼저 발설했다면 또한 사실대로 고했을 터인데 무엇 때문에 핑계를 대느냐.

이에 초고를 잡은 다음 사실대로 쓰면서 동료들이 발설을 하면 이렇게 말하였다.

『그대로 따라 참견한 것이 아니었소?』

그의 뜻을 물으니 그가 소매로 벼루를 덮고 손으로 붓을 뺏으며 함참동안 서로 벼루다가 부끄럽게 힐난하여

얼버무려 말하였다.『대각의 풍토를 그대가 쓸어버렸다.』

大憲公 이식(李植)이 공을 교체하지 말고자 했으나 의논이 맞지 아니하고 공이 체직되었는데 위로부터 하명되어 내사에서 결정되었다. 내전에서 심기원의 애첩을 심문했는데 일가들끼리 말이 오고갈 때 거기에 왕래한 사람들 가운데 공의 이름도 끼어 있었다고 했으나 임금께서 특명으로써 불문에 부치고 유배하고 말았다.

공은 효성이 순독(純篤)하고 그 두 사람은 늙고 병들어서 사람들은 곧 사별할 것을 알았다. 공이 흐느끼면서 결별함에 보는 이들이 눈물을 가리우더라. 공은 평생토록 밭을 권귀(權貴)<sup>⑭</sup>의 문전에 들여놓지 않았고 심기원(沈器遠)이 비록 재종간이나 그를 관대하게 대하지 않았고 심기원이 역시 공을 소외하였으나 주위사람들의 추측으로 하루아침에 문망(文網)<sup>⑮</sup>에 휘감겼으니 온 조정이 원통하게 여겨 모두들 구제하고자 하였으니 다들 이름난 분들과 훌륭한 분들이고 홍무적(洪茂績), 이경석(李景奭), 조석윤(趙錫胤)같은 이들이 지극한 말씀으로 변론을 다했으나 임금께서 의심하여 끝내 풀어주지 않았다.

공이 장흥(長興)에 간지 다섯 달 만에 아버지인 판서공이 병에 걸려 말을 못한 채 장손의 손을 잡고 사(思)자 하나를 써주고 눈물을 줄줄 흘리니 공을 위해서 이다. 그 다음날 집에서 병들어 별세하니 공이 천리 밖에서 흥보를 접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시켜 적소로 옷 한 벌을 보냈는데 공이 받아 안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 눈물이 흘러 옷이 다 젖었다. 한 달이 못되어 수염과 머리털이 하얗게 되고 손주들이 침구와 어머니를 모시고 적소에 면회 가서 공의 효심을 위로하였다.

乙丑(1649)년에 인조께서 승하시니 공이 돌아와 故人에게는 들리지도 못하는 통곡을 슬피 부르짖는 간절함이 부모님께와 같았다. 孝宗초에 죄가 풀려서 공이 말을 타고 돌아오니 아버지의 성묘와 빈궁에 호국함이 급해서였다. 맏아들 창(敞)이 공께서 돌아오자 문득 병으로 죽고 다시 며칠 뒤에 어머니마저 죽으니 공이 통곡하며 눈물이 피를 이루었다. 공이 이에 초상을 치름에 예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었다.

壬辰(1652)년 4월에 연신(筵臣) 임담이 용서하여 임용토록 요청해서 공이 곧 직첩을 돌려 받았다. 가을에 이후원(李厚源)이 전임 강도유수(江都留守) 재직시에 강도의 일을 고하였다.

『沈공의 조부가 목사로 있을 당시 공적이 가장 현저했습니다.』

임금께서 그 자손이 누구냐고 물으셨다.

『공과 그 부친인 판서공 부자입니다.』

홍무적(洪茂績)공이 이로 인해 전일 상소 건으로 공을 칭찬하니 이공 역시 홍무적공의 말이 옳다고 하며 눈으로 본 바를 증거 하였으나 한 相臣이 말하였다.

『沈某의 아버지는 심모인데 병자호란 때 불모사건으로 잘못 대처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금께 고하니 임금께서 비답을 내리셨다.

『그렇다면 심모는 수용할 수 없다.』

乙未(1655)년 5월 낮 갑득 때 정유성(鄭維城)과 김익희(金益熙)가 공에 관한 말씀을 올려서 이들이 지난 뒤 공의 부자가 함께 은전을 입게 되었으나 6월에 느닷없이 삭탈관직 하라는 엄한명이 내리니 조정에서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공이 사랑에서 통곡하니 소리와 눈물이 함께 쏟아져서 듣는 사람마저 슬피 눈물을 흘렸다. 그 뒤 이경석공과 정유석공이 먼저 한 말을 다시 아뢰고 沈之源 이 보충하여 말씀해도 임금께서 용납하지 않았다. 현종이 즉위하여 공의 둘째 아들 유(攸)가 헌직(憲職)<sup>⑯</sup>에 임명되어 청면(請免)을 상소하고 兩代 일을 거론하여 원통한 사정을 다 밝혔으나 서용(敍用)되지 못하니 이것이 밝혀진다면 공이 다시 무엇을 바라리오. 애통해 울고 간장을 썩히며 해마다 병이 더하여 마침내 죽게 되어 생명이 끊어질 무렵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흐느꼈다.

### ■ 주(註)

- ⑬ 시배(時輩) : 당시를 지배하던 무리, 여기서는 반대당을 낮춰 이른 말.
- ⑭ 권귀(權貴) : 권력이 있고 귀한 사람.
- ⑮ 문망(文網) : 상소문으로 인한 그물.
- ⑯ 헌직(憲職) : 사헌부의 직책.

〈다음호에 계속〉

## 大同世譜(庚辰譜) 申請案内



2002년도에 발간·배포한 대동세보(경진보)를 아직까지 모시지 못한 집안에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전 12권(수권, 자손록 10권, 색인 1권)
- ◆ 보급가격 : 22만원(별도구입시 수권 : 40,000원)
- ◆ 송금구좌 : 농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중회)
- ※ 대금을 송금하신 후 대중회(02-2267-7857, 팩스 : 02-2269-7755)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즉시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 대동세보 편집자료 제출시 족보예약금을 납입하고 아직 잔금을 내지 않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청송심씨대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csshim.or.kr)에 명단이 게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대동세보 수권 속편(靑松沈氏世考選, 祭享笏記, 宗보축쇄판, 手帖, 뺏지 포함) : 100,000원

### 『책자 강매』 주의

대중회를 사칭하면서 책자 구입을 강요하는 전화가 많습니다. 책자를 보내오면 대금을 송금하지 말고 즉시 반송하시기 바라며, 다른분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중회에서는

대동세보(경진보 : 22만원)와 대동세보 수권속편(10만원) 외는 보급하는 책자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왕비 소헌왕후(王妃 昭憲王后) 심씨-①

## 왕비를 바라지도 않았던 심씨

세종의 왕비 소헌왕후 심씨는 양주의 명문 청송심씨가 심은(沈溫)의 딸로 1395년(태조4) 9월에 태어났다.

고려 말 할아버지 심덕부(沈德符)와 아버지 심은은 조선 건국에 참여했던 개국공신으로 세종 즉위 초기 영의정에 오르게 되며, 이미 심씨의 숙부도 태조의 딸 경선공주(慶善公主)와 혼인한 부마(駙馬: 임금의 사위)로서 왕실과 沈氏家는 밀접한 관계였었다.

이러한 배경으로 심씨는 1408년(태종8) 당시 태종의 3남 충녕군(忠寧君)이던 세종과 가례를 올려 빈(嬪)이 되었고, 경숙옹주(敬淑翁主)에 봉해졌다. 혼례 때 심씨의 나이 열네 살이었고 충녕군은 열두 살이었다. 충녕군 세종은 태종과 원경왕후 閔氏의 셋째 아들로 1397년(태조6) 4월에 태어났고 1408년(태종8) 충녕군에 봉해졌으며 1412년(태종12)에 충녕대군으로 진봉되었다.

원래 태종의 뒤를 이을 왕세자는 만아들 양녕대군이었으나 그는 자유 분명한 성격 탓으로 엄격한 궁중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해 몰래 궁중을 벗어나 기생 또는 남의 첩실과 놀아났고, 사냥과 풍류생활 등을 즐겨 자주 태종의 화를 돌우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부왕인 태종의 걱정은 물론, 엄격한 유학자들에게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태종의 수차례에 걸친 훈계와 심한 벌도 소용 없었다.

태종은 자신이 애써 이룩해 놓은 강력한 왕권을 이어받아 안정된 정치를 펼치기에는 양녕대군이 부적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때만 해도 태종의 3남 충녕대군과 혼인한 심씨는 왕비가 될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 더욱이 심씨는 개국공신인 시어머니 원경왕후 민씨의 비극을 잘 알고 있었다. 권력에 연루되어 민씨의 동생 4형제가 비참하게 죽은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왕비의 자리도 결코 행복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다.

1418년 4월, 마침내 태종의 마음이 양녕대군에게서 떠났음을 간파한 신하들이 주청했다.

“전하. 세자를 폐하시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옵소서. 충녕대군은 천성이 총민하고 학문 또한 독실함으로 장차 이 나

라의 성군이 되실 것입니다.”

태종 18년 6월,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책봉되자 심씨 또한 경빈(敬賓)으로 승격되면서 심씨와 친정의 운명은 어둠의 국면에 접어들고 있었다.

## 친정의 멸문을 바라보기만 한 심씨

심씨는 불안했다. 시아버지 태종의 강경한 외척 견제와 아버지 심은의 권력욕이 두려웠다. 이미 시어머니 민씨 집안의 비참한 몰락을 지켜보았던 심씨였는지라 제발 아버지가 신중히 처신해 주기를 바랐었다.

1418년 8월, 충녕대군이 제4대 왕으로 즉위하고 심씨가 왕비에 오르면서 아버지 심은이 영의정에 오르자 그는 갑자기 커진 권력을 추스르지 못했다. 결정적으로 상왕 태종의 비위를 거슬리게 한 것은 심은이 명나라에 사은사로 가게 되었을 때 서울 장안이 떠들썩할 정도로 위세를 당당히 과시하고 떠난 일이었다.

상왕 태종은 역시 그의 부인 민씨 가문에 꽃았던 외척 제거의 비수를 며느리 심씨 가문으로 겨냥했다. 게다가 상왕 태종은 세종이 경복궁을 지키는 금위군(禁衛軍)의 군사를 나누어 상왕의 거처인 수강궁과 경복궁을 지키게 했는데, 심은의 동생 심정(沈汀)이 나라의 군국대사(軍國大事)를 상왕인 태종이 처리한다고 불평한 것을 빌미로 심씨 가문을 공격하게 되었고, 심은이 이 사건의 수괴로 지목된 것이다.

상왕 태종의 의도를 알아차린 신하들에 의해 사은사로 갔다가 명나라에서 귀환하던 심씨의 아버지 심은은 명나라 국경을 넘어오자마자 압송되어 수원에서 폄출(貶黜)되고, 자진 여명을 받아 사사(賜死)되었다. 물론 심은의 동생 심정도 이미 숨졌고, 심씨의 어머니 안씨는 관노비(官奴婢)로 전락했다. 세종의 후비 소헌왕후 심씨는 친정의 몰락 과정에 속수무책이었다. 세종 또한 상왕 태종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왕으로 힘을 못 쓰는 판국이었다. 태종은 부인 민씨의 친정을 멸문시키면서까지 외척의 발호를 막았었다. 심은의 죽음은, 태종의 외척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의지를 망각한 대가로서, 심은 자신도 자제할 줄 모르는 권력은 자멸임을 알았어야 했다.

## 폐비의 위기에서 살아난 심씨

한편, 심은을 제거했던 신하들은 심씨를 향해 공세를 폈다. 이들의 두려움은 상왕 태종이 세상을 떠나면 자신들에게 심씨의 복수가 실행될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심씨의 폐출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상왕 태종은 이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내조의 공을 인정받은 심씨가 많은 자손을 생산했고, 세종과도 금실이 좋다는 것이었다.

이미 태종은 그의 후비 원경왕후 민씨의 동생 네 명을 죽였지만 막상 민씨만은 왕비에서 폐출하지 않았듯이, 세종비 소헌왕후 심씨도 그녀의 아버지와 숙부는 죽였지만 왕비 지위만은 박탈하지 않았던 것이다. 태종은 그 대신 왕권 강화의 필요상 외척 세력의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후궁 제도를 법제화했다.

바로 절대 부권주의의 합법적인 일부다처 제도였다.

태종 자신도 그러했듯이 왕에게는 왕비 이외의 여러 여인들과 또 자손들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들 세종의 후궁으로 상호군 조녀의 딸을 의정공주로, 이운로의 딸을 혜순공주로, 최사의의 딸을 명 의공주로, 박의동의 누이를 장의공주로 봉하였다. 이 궁주들은 세종 10년 내명부(內命婦: 궁중에서 품계를 가진 女官)로 빈·귀인·소의·숙의·소용·숙용·소원·숙원 등 후궁의 품계의 정비에 따라 모두 귀인으로 바뀌었다.

품계는 왕의 총애, 즉 승은(承恩: 임금의 총애를 받아 밤에 모시는 것)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자녀를 생산했는지, 자녀 중에 왕자가 있는지, 그 왕자가 세자가 되었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되었다.

자녀를 총 22명을 둔 세종은 8남 2녀를 둔 정비 심씨 외 5명의 후궁에게서 10남 2녀를 두었는데, 후궁 중에는 내자시(內資寺: 대궐에서 쓰는 식품·직조·내연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관아)의 여종이었던 신빈 김씨처럼 궁녀 출신도 있었다.

태종의 후궁 제도의 법제화에 따르면, 후궁은 양반 가문에서만 간택하도록 하였으나 셋째 후궁부터는 출신 여부와 상관없도록 하였는데, 이는 국왕의 선택권을 확대시켜 주는 한편 궁녀들에게도 적게나마 희망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도 내포하고 있었다.

세종이 많은 후궁을 거느렸음에도 세종의 정비 심씨는 투기(妬忌: 간샘)하지 않았다. 후덕했던 심씨가 후궁이나 그 소생들을 박대하지 않고 한 동기처럼 후대해 줌에, 그 어느 임금보다 호색이었던 세종의



치세(治世)에 있어 내명부에 따른 분란은 없었다.

그렇지만 후궁들의 동향에 무감각한 심씨는 아니었다. 심씨는 궁중 곳곳에 사람을 심어 그 후궁들의 동태와 왕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고 있었다. 심씨는 자신이 낳은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이 여자 문제가 복잡하다는 사실을 유모를 통해 듣고 세종에게 전하여 다스렸으며, 다른 후궁들과 왕자들도 이런 식으로 관리했다.

이처럼 권내의 일을 꼼꼼하게 주관한 심씨는 왕의 배우자로서 대통을 잇는 자식을 많이 생산했고, 궁궐의 마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갔던 것이다.

아버지와 숙부가 죽고 어머니는 관노비가 되어 버린 참담한 비통을 가슴에 묻은 채 폐비의 위기까지 이르렀던 심씨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슬픔을 인자한 미소로 베풀 후덕한 처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 왕후열전에서 -

<다음호에 계속>

- 正 郎 公 馬 山 宗 會
- 生 員 公 派 法 申 宗 會
- 通 訓 大 夫 公 宗 會
- 萬 重 公 宗 會
- 濟 喆 公 宗 會
- 清 獻 公 宗 會
- 養 淳 公 派 宗 會
- 信 川 公 芝 境 宗 會
- 光 州 金 堂 山 斗 岩 宗 會
- 光 州 金 堂 山 碧 岩 宗 會
- 光 州 金 堂 山 松 岩 宗 會
- 贈 參 判 公 宗 會
- 將 仕 郎 公 派 宗 會
- 廣 州 府 尹 公 善 山 宗 會
- 容 難 齋 公 宗 會
- 廷 江 公 馬 山 宗 會
- 宣 教 郎 派 宗 會
- 參 判 公 派 宗 會
- 水 運 判 官 公 派 僉 正 公 宗 會
- 察 訪 公 派 宗 會
- 修 撰 公 派 高 尺 宗 會
- 陽 智 公 左 承 旨 公 宗 會
- 軍 資 監 主 簿 公 派 宗 會
- 靖 夷 公 派 府 使 公 宗 會
- 水 運 判 官 公 宗 會
- 信 川 公 派 春 川 宗 會
- 信 川 公 宗 會
- 忠 翼 公 宗 會
- 富 平 公 宗 會
- 正 郎 公 派 宗 會
- 成 川 府 使 公 宗 會
- 都 事 公 派 宗 會
- 司 禦 公 派 宗 會
- 宣 武 功 臣 宗 會
- 光 州 金 堂 山 宗 會
- 青 溪 府 院 君 宗 會
- 豐 德 公 派 宗 會
- 進 士 公 派 宗 會
- 青 陽 君 宗 會
- 谷 山 公 宗 會
- 僉 正 公 宗 會
- 林 川 公 宗 會

宗 事 消 息

三韓國大夫人 忌辰祭 奉行

2010년 12월 28일(음: 11월 24일)



初獻: 行鎮 亞獻: 庚周 終獻: 洪燮  
執禮: 載玉 大祝: 相弘 執事: 彦村 應植

忠翼公 諱 忠謙(휘:충겸) 忌辰祭 奉行

2011년 1월 7일(음: 12월 5일)



初獻: 奉燮 亞獻: 仁輔 終獻: 良燮  
執禮: 載玉 大祝: 洪燮 執事: 明燮 成燮

一松公(휘:喜壽) 影幀曝曬祀(영정포쇄사)

(음: 10월 25일)



初獻: 鎬元 亞獻: 相直 終獻: 利燮  
大祝: 成來 執禮: 洪燮 執事: 憲圭 載洪

杜山亭에 협조



2세조 함문지후공 휘 연(諱淵) 선조의 祠宇인 두산정 보존에 대한 모금운동(청송심씨 종보 제86호 7면)에 많은 일가분들이 동참하고 있다. 두산정 보존회에서는 전국의 일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상을 섬기는 행사에 함께 하기를 고대하고 있다.

▷헌성금 계좌번호:

농협 356-0301-8020-33 심재화

▷추가 헌성자 명단

- 심채수 500,000 심경섭 100,000 심규세 100,000
- 심상철 100,000 심무섭 100,000 심윤보 150,000
- 심호태 200,000 심상운 100,000 심재주 100,000
- 심주섭 100,000 심호섭 100,000 심상언 100,000
- 심임섭 100,000 심재명 100,000 심재광 100,000
- 심철호 100,000 심군섭 100,000 심진택 100,000
- 심상두 100,000 심상돈 100,000 심경환 100,000
- 심임환 100,000 심재화 100,000 심재인 100,000
- 심용석 100,000 심경환 100,000 심기조 100,000
- 심충일 100,000 심기동 100,000 심치보 100,000
- 심구권 100,000 심구식 300,000
- 진주 냉정문중 1,000,000원

찬경루 일대 공원 조성사업 완료



찬경루 전경 (청송읍 월막리)

讚慶樓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지붕 중심의 대들보에 굽이 가고 여러 개의 서까래가 부식되어 지붕을 완전히 해체한 후 도리만 남겨두고 대보수를 받게 되었다. 중수비용은 4억 1천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찬경루가 문화재이므로 文化財廳과 靑松郡의 부담으로 중수되었

다. 찬경루 앞에 있던 사적비는 찬경루 옆으로 옮겨 세워졌으며, 그 자리에 연못을 만들고 조경을 하여 공원화 하였다. 전면에서 바라보면 공원중심에 靑松沈氏事蹟碑가 우뚝 서 있고 우측에는 讚慶樓가 있으며, 뒤로는 옛 모습대로 신축한 운봉관이 보인다.



추모재 신축 전경 (청송읍 덕리 보광산)



- 奉翊公派 判書公宗會
- 岳隱公派 宗會
- 縣令公宗會
- 縣令公派 慶南宗會
- 判事公宗會
- 都摠制公派 宗會
- 麟蹄宗會
- 判事公派 宗會
- 知成州事公宗會
- 葵菴公花樹會
- 執義公宗會
- 仁壽府尹公宗會
- 谷城宗會
- 正郎公宗會
- 內禁衛公宗會
- 節度使公宗會
- 郡守公宗會
- 宇發宗會
- 參判公宗會
- 楠公派 宗會
- 靑平都尉公宗會
- 左承旨公宗會
- 通川公宗會
- 同知敦寧公派 宗會
- 咸興公宗會
- 玄齋公宗會
- 成川公派 梧南宗會
- 魯學公宗會
- 晴灣公派 聖信公宗會
- 安孝公宗會
- 恭肅公宗會
- 靖夷公(魚肥里)宗會
- 夷敬公宗會
- 內資寺判官公宗會
- 舍人公宗會
- 修撰公宗會
- 曉窓公宗會
- 左議政公宗會
- 丁樹宗會
- 水使公宗會

謹 賀 新 年

# 심훈(沈熏)의 필경사(筆耕畝)를 찾아서 - ②



심 훈

“상록수”란 당시 경기도 화성시 반월면 샘골(泉谷)에 있던 작은 학원에서 일제에 항거하며 애국심과 농촌계몽운동으로 활약하던중 26세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바친 최용신(崔容信)이란 젊은 여성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로 이 책자를 “상록수”라 이름하였다.

소설속에 나오는 주인공 최용신은 본래 함경도 덕원(德原)사람으로 元산의 류씨여고보(柳氏女高普)를 졸업하고 협성여자신학교(協成女子神學校)에 다니게되었다. 당시에 조선에는 조선정부로부터 근대 여성교육과 농촌의 계몽운동을 목표로 정부에서 허가를 득하여 세워진 학교들이 있었는데 제일먼저 세워진 1884년의 이화학당을 위시하여 서울의 배화여학당, 공옥여학교, 인천영화여학당, 수원 의 삼일여학당 등이 있었고 당시에 원산의 류씨여고가 이러한 취지로 1903년 설립된 이래 원산지역을 대표하는 여성교육기관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최용신은 원래 부유한 가문에 태어났으나 일제가 농민들을 착취하여 농민생활이 피폐하여 질대로 피폐하여진 것을 보고 나라와 농민을 위하여 농촌계몽 운동을 하고자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류씨여학교를 졸업하고 입학한 곳이 여성만의 신학교육기관 이었던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기르고 농촌계몽에 필요한 민족주의 신학교육을 착실히 수업 하였다.

최용신은 1931년 10월 YWCA 파견교사로 경기도 화성의 반월면 샘골에 오게 된 것이며 처음에는 예배당을 빌려 몇 안되는 사람을 교육시키는 형편이 였으나 정성을 다하여 학문을 깨우쳐 주고자 노력을 하게되니 어느덧 모인 사람이 100여명에 이르렀다. 이에 학원을 지을 대지를 내어 준 독지가가 있어 YWCA에서 나오는 후원금과 유지들의 정성에 힘입어 1932년에 정식으로 인가를 받고 1933년에 학원을 설립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泉谷學院”이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더 많은 학문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일본 “고베(神戸)여자신학교”에 유학을 하게 되었는데 불운하게도 유학중에 각기병에 걸려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천곡학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최용신은 이모든 일들을 담담하게 받아드리며 전보다도 더 열심히 정성을 기우려 학원을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전에는 YWCA에서 나오는 후원금이 있었고 또 독지자들이 후원을 보태어 운영이 무난하였으나 YWCA에서 보조금이 끊기면서 운용자금이 부족하여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되었다

최용신은 학생들이 많아 오전 오후 야학까지 3부제로 뻘뻘하게 수업을 강행하면서 또 한 편으로는 자금을 마련



필경사(筆耕畝) 왼쪽에 있는 심훈선생 묘소

하는데도 정성을 기우렸으니 너무 혹독한 활동으로 인해 과로와 영양실조로 자리에 눕게 되었으며 종래는 일어나지 못하고 26세의 젊은 나이에 한 생애를 마감하게 된 것이다. 최용신은 마지막 까지도 학생격정 어머니를 걱정하다 운명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일이 아닐 수 없다. 산소는 유언에 따라 학원옆에 쓰게 하였으니 이것이 “상록수”의 즐거리이다.

심훈선생은 최용신이 타게 한 후에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몸을 받쳐 나라를 위한 그 헌신적인 노력을 승화시키기 위해 이“상록수”를 집필하였는데 훗날 이것

이 농촌계몽운동의 지표가 되었다. 이 작품은 동아일보 현상 공모에 당선되어 연재되었으니 이 상록수는 심훈선생의 대표작이 되었다. 여기에 나오는 상록수란 책명은 『상록수란 문학잡지에서 따온 것이라 하였다. 선생은 상록수를 책자로 발간하기 위해 상경하였다가 타계하였는데 최용신이 타계한 날로부터 1년 7개월 후이다.

필경사는 부엌과 아궁이 화장실 까지 선생이 건축할 때와 똑같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있으며 필방(筆房)에는 등잔과 옷가지. 그리고 그때 쓰던 책상위에는 당시에 보던 책들이 어지러이 널려있다. 필경사 뒤뜰에는 당시에 선생이 심었다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랐고 필경사 앞마당에는 두어그루의 향나무가 운치를 더해준다. 영상실에 비치되어 있는 호적을 살펴 보니 原名은 沈大燮이니 훈(熏)은 예명이다.

필경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고향으로 내려 올 때 부모님과 살던 고택이 아직도 옛날 그대로 있어 지금은 선생의 장조가 되는 심재영의 부인이 살고 있다. 필경사의 바로 옆에는 작년에 용인에서 모셔왔다는 산소가 밑없이 손님을 맞고 있었으며

마당 한편에는 1996년에 한국문인협회가 세웠다는 시비(詩碑)가 하나 서있는데 들여다보니 그 유명한 심훈의抗日대표작 詩 <그날이오면> 이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그날이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솨음치는 그날이  
이 목숨 끊지기 전에 와 주기만 할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드리받아 울리 오리다.  
(中略)  
우렁찬 그 목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꺼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이것 저것 보는동안에  
어느덧 시간은 흘러 서양엔 노을이 지고 가야하는 나의 가슴에는  
심훈선생의 그 고귀한 정신과 작품들을 한아름 담아가야 할 것 같다

- 3 -

<다음호에 계속>

## 『靑報會』 동정

2010년 12월 5일  
경인년이 ‘저무는 산행’

불광역에서 10시 30분에 15명의 靑報會 회원이 모여 오늘의 산행이 시작되었다. 구기터널 방향으로 10여분 걸어서 올라가니 야산에 정리 정돈이 잘되어 있는 생태공원이 나왔다. 시작부터 오르막 경사 길이라 이게 무슨 들레길이야... 하는 항의성 질문도 있었고 어느 회원은 그저 “산은 산이요, 산일 뿐이라...” 초행길이라 올라가다 보니 갑자기 길이 막혀 추축하다가 다시 코스를 찾아서 좁은 입구를 지나가니 여기서부터 들레길이 이어지고 있었다. 곧 나무계단이 나오고 길이 조금 평평해지니 다들 가볍게 걷는다. 일행은 보조 맞는 사람끼리 얘기를 나누며 정리가 잘 된 계단을 지나면서 들레 길을 오르고 내려가면서 전방에 보이는 아파트가 그림 같이 정렬된 곳도 있고, 주택들도 즐지어 있는데 주변 환경이 참으로 좋아 보였다. 그러나 한편에는 지난여름에 서해안에서 내륙으로 몰아친 태풍(콤포스)에 오십년 이상 된 소나무와 수많은 나무가 여기저기에 쓰러져있는 것은 보니 그 위력이 대단함을 느꼈다. 태풍으로 쓰러진 나무가 길게 누워있는데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 의자로 사용되어 전기 줄에 얽은 제비처럼 주르륵 나란히

앉아 간단한 요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다. 산길을 조금 벗어나 걸어가니 길 밑에 또 아파트가 보인다. 북한산이 내 집 정원 같을 터니 공기도 맑고 아이들 등교 시킬 일 없는 사람들은 살만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정표를 따라 진관동으로 가는 길로 들어섰다. 단풍도 한 물 갔으니 스산한 느낌이 든다. 들레길을 따라 가면서 동네를 지나갈 때는 주민들에게 폐가 될까 싶어 목소리도 낮추고 발걸음도 조심하게 되었다. 방송을 타고난 후에는 밀려오는 사람들로 몸살을 앓는다니 더 조심해야 되겠다. 옛 기자촌의 모습은 사라지고 철거된 능선 길을 따라 진관동으로 내려가니 2시간이 소요되었다. 은평지구 뉴타운아파트 숲을 지나 연신내역 근처 유명한 해물탕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내년부터는 3월



북한산 들레길(불광역~진관동)

에 始山祭를 지내기로 회장이하 전회원이 사히 끝내면서, 내년에도 무사한 산행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였다. 금년말 산행을 무 되기를 모두가 기원하였다.

- 美 洲 宗 會
- 海 外 宗 會
- 陝 川 宗 會
- 統 營 宗 會
- 馬 山 宗 會
- 晉 州 宗 會
- 慶 南 宗 會
- 林 川 公 宗 會
- 固 城 郡 宗 親 會
- 金 泉 地 域 宗 會
- 安 東 宗 親 會
- 安 東 宗 會
- 星 州 宗 會
- 龜 尾 宗 會
- 慶 北 宗 會
- 順 天 宗 會
- 全 南 宗 會
- 益 模 宗 會
- 任 · 淳 · 南 宗 會
- 井 · 高 · 扶 花 樹 會
- 益 山 宗 會
- 全 北 宗 會
- 全 北 宗 會
- 忠 南 宗 會
- 公 州 宗 會
- 唐 津 宗 會
- 夫 餘 宗 會
- 忠 南 宗 會
- 堤 川 · 丹 陽 宗 會
- 曾 坪 宗 會

인 터 넷 중 친 회

오늘날 국가적 사회의 혼란한 시국을 타개할 특별한 처방(방법)은 있는가? 오직 모든 국민이 각자의 위치에서 부여된 자기의 직분과 도리를 충실하게 다하는 만고불변의 진리만이 있을 뿐이다. 그 진리는 다름 아닌 오륜(五倫)의 숭상이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구성도 오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교사상은 공맹(孔孟)을 중심으로 한 인륜사상이다. “얹”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 것인가 하는 “삶”의 문제를 더욱 문제삼는 까닭에, 생태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며, 윤리도덕의 사회를 건설하여 평화를 이룩하자는데에 있는 것이다. 효란 인간이 세상에 나오면서 부모와 자식사이에 이루어지는 원초적인 관계인 것이다. 인간생명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효인 것이다.

아놀드 토인비가 1980년 초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의 홍익인간정신과 효사상을 예찬한 바도 있다. 효는 가정윤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와 노인세대, 나와 이웃, 인간과 자연환경과 개인과 국가가 하모니(조화)

# 논단

## 효의 정신과 생명론

심 성 구 (전례연구위원)

를 이루는 인륜질서의 근본임을 깨우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孔子의 仁사상을 비롯한 동양의 고전 “효경”과 서명(西銘 : 북송나라) 성리학자인 장재(張載)는 유교의 기본원리인 인애(仁愛)를 설명한 글에서, 효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건전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부모의 생명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 형제의 생명, 나라가 인류 그리고 만물의 생명까지도 사랑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는 천륜으로 맺어진 관계로서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보다도 순수한 사랑(Agape)인 것이다. 효는 변치 않는 규범이

요 생명을 근거로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인 것이다 부모와 자식사이에서 출발하는 효는 인간존중의 생각과 생명존중의 바탕으로 하는 가장 가치 있는 표현으로 만남 속에서의 나타나는 도덕규범이다.

효로 부모를 봉양함은 물론 조상숭배와 자손을 통한 생명과 효의 영원성을 추구하는 수직적인 부모자식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가정환경, 이웃, 사회, 국가로 종교적 면에까지 확대되는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효의식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며 생명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효는 천성(天性)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다. 나의 몸과 생명을 있게 해준 부모와 조상에게 숭배하

는 배경으로 효도함은 당연한 것이다. 가족관계에서는 자기 자신과의 환경관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옛날부터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가화만사성 : 家和萬事成)”고 한다.

여기에서 가족에 대한 4가지의 필요한 진실이 있다.

1. 가족관계는 단순한 평면적 관계가 아니라라는 점.
2. 가족은 반드시 노력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
3. 가족간에 상호 배려와 감정의 역제로 효행이 필요하다는 점.
4. 가족 간에 합리적 기대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모두가 실천해야 할 것으로 “가정은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물질적인 량의 생활에서 도덕적인 질의 생활로, 자유를 성취하고, 연대성을 강화하여 동질감을 회복하며, 새로운 효의식의 분위기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효의식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예절(禮節) 한 토막 ⑤

### ■ 설날의 풍속과 놀이기구

#### 1. 차례(茶禮)

자기의 집에서 기제사를 지내는 모든 조상에게 설날 음식(떡국)을 올리고 새해 인사를 여쭙는 것을 설날 차례라 한다. 설날 차례 상의 과실에는 강정을 올려야 한다. 강정은 설날 과자이기 때문이다.

#### 2. 설빔(歲粧)

남녀 어린이들에게 설날 아침에 새 옷을 입히는데 그것을 설빔이라 한다.

#### 3. 세배(歲拜)

설날에 집안의 어른이나 동네어른 또는 선생님 선배에게 새해 인사의 절을 하는데 그것을 세배라 한다.

\*떡담(德談) : 설날 인사를 떡담을 한다고 하는데 떡담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새해에 이루어야 할 일을 긍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근친 어른에게는 말로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배만 하면 되고 친척이 아닌 어른에게는 말로도 인사를 하는데 그것은 떡담이 아니라 새해 인사이고, 그 내용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건강을 빌어드리는 말로 인사하는 것이다. “새해에도 기력 강녕 하세요”가 옛날부터 어른에게 여쭙는 새해인사였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는 상대를 잘 모르는 경우에 듣기 좋게 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인사하는 말이다.

\*세배 돈 : 아이들이 세배를 하면 칭찬하는 의미로 용돈을 주는데 그것을 세배 돈이라 한다. 돈 벌이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이다. 절 배우는 아이들에게 절을 잘한 것을 칭찬하기 위해 주는 것이다.

#### 4. 세찬 제주(歲饌 歲酒)

설날에 대접하는 음식을 세찬이라고 하고, 술을 세주라 한다. 설날 다른 사람에게 용돈을 주거나 선물 또는 음식을 줄 때에는 봉투에 세찬(歲饌)이라 쓰는 것이 좋다.

#### 5. 문안비(問安婢)

부인들이 나들이하기가 어려워 부리는 여자 종을 대신 문안을 보내는데 문안비라 한다. 문안비를 맞는 집에서도 문안비는 그 상전을 대접하듯이 융숭하게 한다.

#### 6. 세함(歲銜)

세배 갔다가 주인이 없으면 이름을 써서두고 오면 세배를 한 것이 되는데 이것을 세함이라 한다. 요사이의 연하장과 같은 것이다.

#### 7. 떡국(湯餅)

멥쌀가루를 찌서 안반에 놓고 메로 쳐서 가래 떡을 만들고 엽전같이 찢어서 끓인 떡국이 설날의 대표적 음식이다. 나이 먹는 것을 떡국을 몇 그릇이나 먹었는가로 세기도 한다. 설날 음식이 떡국이 된 까닭은 가래 떡은 손으로 문지르는 대로 길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이가 그렇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 8. 강정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 보면 설날 차례 상에는 가루로 된 누에고치(紛繭)가 오른다고 하였는데 강정이 가루로 만들었고 생김새가 누에고치 같이 생긴데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강정을 설날 과자라 하고 설날 차례 상에는 강정을 올린다.

#### 9. 설날 놀이

윷놀이는 4개의 쪼갠 나무토막을 던져 젓혀지고 얹어지는 것으로 도는 돼지로 하나, 개는 개로 둘, 곁은 양으로 셋, 윷은 소로 넷, 모는 말로 다섯이라고, 가족 중 곁음의 속도의 빠른 순서로 숫자의 크기를 정해 누가 먼저 목표를 이루느냐로 승부를 가리는 것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즐기는 설날의 대표적 놀이이다.

#### \*쟁경도 · 승경도(爭繩圖 · 陞繩圖) 놀이

큰 종이에 벼슬이름을 써서 펼치고 쌍옥(주사위) 같이 6개의 면을 만들어 그것을 굴려서 멈출 때에 나타나는 1에서 6까지의 숫자로 승패를 겨루는 윷과 같은 놀이기구이나 윷을 던져 나오는 숫자대로 말을 옮겨 높은 벼슬에 올라가는 놀이로서 요사이의 주사위 놀이와 같은 것이다.

#### \*연 날리기 · 제기차기

남자 아이들의 대표적 놀이인데 겨우내 움추렸던 하체를 튼튼하게 운동하는 것이다. 연은 원래 군사 첩보용 또는 군사 통신용으로 쓰던 것인데 놀이로 활용하는 것이다.

#### \*널 뛰기

주로 여자들 놀이인데 역시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놀이이다. 원래는 판무(板舞)라 해서 유구(오끼나와)에서 들어온 것인데 군사용으로 월성장비(越城裝備)였는데 여인들이 하체운동으로 즐겨 논다.

이렇게 설날은 전통적인 명절이고 양력 1월 1일은 명절이라 보다는 생활력의 1월 1일 인 것뿐이다.

월간 실천예절에서 이사 심흥섭

謹賀新年

地域宗會

忠北	水原宗會	龍仁宗會	長湖院宗會	安城宗會	城南宗會	富川宗會	金浦宗會	京畿	春川宗會	金化宗會	原州·橫城宗會	三陟宗會	江原	蔚山青松會	蔚山青年會	蔚山	大田·忠南地區宗會	大田	光州青光會	光州	青仁會	仁川宗會	仁川	大邱青·壯年會	大邱宗會	大邱	釜山青松會	釜山宗會	釜山	永登浦宗親會	東서울宗會	西서울宗會	南서울宗會	서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清州·青原宗會

人事

재철 : 한나라당 정책위원장  
 삼수 : 한국씨티은행 안산지점장  
 재일 : (주)신세계 무점포사업본부장  
 순선 : 삼성전자(승진) 전무  
 재황 : 삼성전자 상무  
 현택 : 삼성SDS(승진) 전무  
 경수 : 충남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헌법학회회장  
 한욱 : 한국전력 육천지점장  
 재식 : 한국전력 하동지점장  
 동섭 : 한국전력 대전전력소장  
 재만 : 삼성증권 채권시장 사업부장  
 재완 : (주)아모레퍼시픽 시판부문 온라인 사업부장  
 영욱 : 우리투자증권 글로벌전략부장  
 재웅 : LIG손해보험 장기보험담당이사  
 규영 : 우리은행 문정동지점 부장  
 경식 : 한전KPS수화력처 사업운영팀장  
 상기 : 우리투자증권 포항지점장  
 재오 : 국민은행 본부장승진  
 규현 : SK텔레콤 중국패션 사업부장  
 두섭 : SK에너지 리테일마케팅 사업부장  
 상천 : KT CS 추진본부장  
 아섭 : 한국남부발전 건설처장  
 상덕 : (주) 만도 전무  
 형진 : 중앙대 의료원 영상의학과장  
 상근 : 국민은행 용담동지점장  
 영권 : 국민은행 서초동지점장  
 우석 : 국민은행 부안지점장  
 미란 : 국민은행 압구정동지점장  
 재욱 : 국민은행 홍제동지점장  
 영무 : 현대엠코 이사대우  
 광식 : 기아자동차 이사대우  
 상대 : SBS 편성실 외주제작팀장(부장)  
 기보 : KBS 아트비전 장식제작부장  
 재호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과서 검정기획실장  
 윤국 : STX팬오션 부상무  
 심섭 : 수출입은행 (부행장)경제협력본부장  
 상복 : 중앙일보 논설위원  
 기보 : 경기도 오산시 부시장  
 재홍 :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과장  
 흥근 : 행정안전부 지역발전과 서기관  
 용완 : 한국인삼공사 제주지사장  
 성호 : 아이스레이션 이사  
 은석 : 경찰청 충남청 경무  
 재홍 : 쌍용건설 상무보  
 재화 : 부산시 동래구 4급승진(국장요원)  
 중섭 : 수유동 수송중학교 교감  
 이섭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인사행정처 회계부장  
 揆衡 : 인천대학 박사과정에서 공학박사 (논문 타워 클레인)를 수여함  
 기갑 : 드림기업지점장 동수원  
 규만 : 신한금융투자 군산지점장  
 혜련 : 한국관광공사 인센티브 전산팀장

任 員 會 費

贊求	2010	300,000	대총회부회장
春植	2010	200,000	대총회감사
仲燮	2010	50,000	부여
吉燮	2010	50,000	창원
駿燮	2010	50,000	光州
載玉	2010	50,000	수원
宜石	2010	50,000	김천
在叔	2010	50,000	김천
明輔	2010	50,000	김포
相燾	2010	50,000	청송
琬澤	2010	50,000	청송유사
能光	2010	50,000	청송유사
원섭	2010	50,000	청송
相學	2010	50,000	청송
載洪	2011	50,000	청송 관장
晟求	2010	50,000	오포
洵燮	2008~2010	150,000	안양
相均	2010	50,000	부산
允輔	2010	50,000	김포
愚弘	2009~2010	100,000	강릉
勇鎭	2010	50,000	신길동
揆善	2010	50,000	대전
炯燦	2010	50,000	김포
相錄	2010	50,000	장성
載萬	2009~2010	100,000	신림동
康燮	2010	50,000	김포
貞燮	2010	50,000	장성
駿求	2011	50,000	인천
相哲	2008~2010	150,000	부안
載德	2011	50,000	응암동
三圭	2011	50,000	개포동
相烈	2011	50,000	김포
百燮	2011	50,000	쌍문동
英輔	2011	50,000	명륜동
相厚	2011	50,000	안산
愚夏	2011	50,000	여의도

宗 報 贊 助

安孝公宗會	5,000,000	
安城宗會	200,000	
善山宗會	300,000	
淸州宗會長 成輔	200,000	
內資寺判官公派宗會	200,000	
察訪公派宗會	200,000	군포
縣令公派慶南宗會	100,000	진주
南서울宗會	100,000	
益模宗會	100,000	논산
英輔	100,000	명륜동
만복	30,000	단양
상철	100,000	청송
평진	50,000	원당
심헌	50,000	울산
재홍	50,000	양평
재웅	50,000	보령
宜龜	50,000	신당동
운식	30,000	울산
재순	50,000	수원
재수	30,000	익산
재화	50,000	산청
옥수	50,000	김천
재춘	50,000	화곡동
彦村	100,000	수원
相奉	36,409	美國
상만	30,000	송파
相基	50,000	동두천

바로잡습니다

- ▶ 종보86호 8면
- 재운 무안을 鎭安으로 상운 삼척을 束草로 訂正합니다.
- ▶ 강주부공 봉향회 헌성금
- 司禦公派宗會(諱 友寬) 00,000을 300,000원으로 訂正합니다.



고려대 MBA 교우상 수상  
 심상돈 스타티코리아 대표는 고려대 경영전문대학원(MBA)교우회에서 자랑스러운 MBA 교우상을 수상했다. 沈대표는 장애인 등 소외 계층을 돕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로를 인정 받았다.



올해의 테크노 CEO상  
 심재설 LS엠트론 대표이사는 올해의 테크노 CEO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기업부문에서 뽑힌 심대표는 산업기계를 비롯해 첨단부품과 첨단소재 분야를 적극 연구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였다. 이 상은 기술개발과 기업경영에 성공해 국가과학기술혁신에 공헌한 상이다



'자랑스러운 세종인상' 심경자씨  
 세종대 동문회는 2010년 '자랑스러운 세종인상' 수상자로 한국화가 심경자(66) 세종대 명예교수를 선정했다. 沈교수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황조근정훈장을 받았다.

5처산소 유사 연락처

세	관 직	소재	유사	전화번호
시 조	문림랑공	청 송	能光	010-9236-2331
			琬澤	011-9374-4166
2 세조	합문지후공	합 열		
3 세조	청화부원군	안 성	光澤	011-732-5768
4 세조	청성백	연 천	良燮	011-728-2104
4세조비	청주송씨	청 주	成輔	019-480-9994

靑 松	청송심씨	찬경회관	054-874-3400
	館長	載洪	018-505-7611
	악은공중회 총무	相七	010-9776-7170
淸 州	청 주 회 관		043-286-7857
大 田	뿌리공원 안내	玄根	011-429-6760

송금안내

任員會費 · 贊助金 · 宗報贊助를 송금하실 분은 아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 협  
 084-01-193626 (청송심씨대종회)

인터넷 족보 수단금 송금안내

• 농 협  
 301-0019-5484-91 (청송심씨대종회)

수단(收單)은 우편, 팩스(2269-7755) 또는 이메일 : cshimssi@kornet.net로 보내주시고, 수단금은 상기 계좌로 입금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267-7857

